

말기 암 환자 간호사의 직무소진 관련 요인 분석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음주연구소¹, 광주여자대학교 환경보건학과²

류 정 순·김 광 기¹·김 정 희²

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of Nurses Working for Cancer Patients

Chung Soon Leou, Kwang Kee Kim¹ and Jeoung Hee Kim²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¹Center for Alcohol Studies, Inje University, Department of ²Environmental Health, Kuxangju Womens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surrounding burnout of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Methods: The sample of this study was conveniently selected among nurses who had hospice care experienc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wo hundred forty four questionnaires were retrieved and the response rate was 81.3%.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February 25th to March 5th in 1994.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The data showed that respondents reported to have burnout as many as 2.71 out of a 5.0 score. Bivariate analyses indicated that those who had hospice education reported to have a lower burnout than those without hospice education.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the nurses have had. They include being a Christian, higher job satisfaction, and experiences of hospice education. Hospice education reducing burnout for the nurses was observed by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fter controlling out the effect of coping method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b satisfaction, and job-related stresses on experience of burnout. This observation was not true f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burnout but for burnout in general and emotional one. But this was not confirmed among the nurses with type A personality.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a weakness in generalizability due to the sampling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However, for the better hospice care further research with a probability sampling method are necessary.

Key Words: Hospice education, Nurses for cancer patients, Burnout

서 론

암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며 지난 10년 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질환이다[11]. 암 환자 중 말기 암 환자의 비율이 높은 국내 상황은 병원 내 높은 병상점유율 및 임종환자 수와 연관되게 된다. 아울러 치료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간호요구도가 매우 높은 말기 암환자의 특성은 병원 조직 내 관련 의료진, 특히 암환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말기 암환자 간호사의 직무소진은 결국 말기 암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로 연결되고,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 추고 및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암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암환자 및 그 가족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스트레스 및 직무소진을 통한 환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시행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 말기 암 환자 가족에 대한 부담[9]이나 말기 암환자 간호사의 업무 부담감 및 태도에 관한 연구[1] 등은 말기 암 환자 간호사가 높은 병상점유율 및 임종환자 수로 인해 과중한 업무량 속에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반 환자 간호과정과는 달리 간호사가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치료과정의 부작용 및 심한 통증 등과 같은 말기 암과 관련된 고통스런 투병, 죽음에 대한 불안 및 공포 속에 가족을 비롯한 자신의 삶과 연계된 모든 것과의 이별 준비과정 등의 죽음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조우하는 등의 일반 임상간호사와는 다른 부가적 스트레스 유발 경험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의욕상실에 따른 직무 소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6].

스트레스를 반복·지속적으로 경험하거나 더 이

상 감당해 내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소진상태는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0]. 즉, 소진상태가 있는 동료 를 인식한 간호사 등을 통해 소속 집단 전체로 직무소진 현상이 공유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개인적으로 소진을 경험한 간호사의 특징이 환자에 대한 무관심 및 부정적 업무태도로 나타나기에[8] 이러한 개인적 특징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말기 암환자에 대한 삶의 마지막 준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말기 암환자 간호사의 직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말기 암환자를 위한 최적의 간호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진예방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1) 말기 암 환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수준, 2) 말기 암환자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별 스트레스 및 소진수준, 3)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말기 암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이다. 본 연구 자료는 편의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서울시 소재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30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2004년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본 조사 자료에 대한 응답률은 81.3%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도구는 조사대상의 개인적 특성, 업무스트레스, 소진 등의 3개 조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 특성은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평균수입, 근무연한, 종교, 근무병원, 근무부서, 병동만족

도 및 호스피스 교육여부 등의 10개 변수를 이용하였다. 업무스트레스는 Gray-Toft & Anderson(1981)이 개발하여 김은하(1995)[2]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기초로 한 22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4점척도의(1=전혀 느끼지 않는다; 2=가끔 느낀다; 3=자주 느낀다; 4=매우 자주 느낀다)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0.84였다. 소진은 정미희(2002)[10]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5점척도를 사용하였으며(1=없다; 2=가끔 경험; 3=보통; 4=자주 경험; 5=항상 경험) 신뢰도는 0.84였다. 소진의 내용은 전체 소진, 신체적 소진, 정서적 소진, 정신적 소진 등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Window version 10.0 통계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소진정도 및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가 이용되었고, 개인적 특성별 소진정도는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소진 관련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실시되었다.

결 과

1. 말기 암 환자 간호사의 스트레스 및 소진 수준

말기 암 환자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및 소진수준은 Table 1과 같다. 업무스트레스 정도는 2.33으로 가끔 이상에서 보통 이하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 암 환자 간호사들의 전체 소진 수준은 2.71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경험하고 있었다. 소진 영역별로는 신체적 소진이 3.01로 가장 높은 반면, 정신적 소진이 2.65로 가장 낮았다.

Table 1. 말기 암환자 간호사의 스트레스 및 소진 수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스트레스	2.33	0.32
전체 소진	2.71	0.43
신체적 소진	3.01	0.69
정서적 소진	2.93	0.51
정신적 소진	2.65	0.50

2. 개인적 특성별 스트레스 및 소진 수준

Table 2는 말기 암 환자 간호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및 소진정도를 개인적 특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개인적 특성 중 '근무부서'만이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외과계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호스피스 및 암병동 근무 간호사는 상대적으로 외과계 및 내과계 근무 간호사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별 전체 소진은 '연령', '근무연한', '호스피스교육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4년의 근무연한을 가진 20대 후반의,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간호사에서 소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소진 영역에서는 '연령'과 '근무연한'이 신체적 소진과, '연령', '근무연한' 및 '호스피스교육유무'가 정서적 소진에서, '연령' 및 '종교'가 정신적 소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하부 소진 영역에서 '연령'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24~29세' 연령군의 소진수준이 높았다. '근무연한'은 정신적 소진을 제외한 모든 소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2~4년'의 근무경력자가 신체적 소진이 많았던 반면, '6~8년'과 '2~4년'의 경력자순으로 정서적 소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Table 2. 개인적 특성별 스트레스 및 소진수준(mean±S.D)

변수	신체적 소진	정서적 소진	정신적 소진	전체 소진	스트레스
연령					
24세 이하	2.83±.68	2.83±.48	2.54±.37	2.73±.42	2.28±.26
24~29세	3.12±.62	3.03±.49	2.76±.52	2.97±.48	2.36±.69
30~34세	2.84±.70	2.80±.55	2.55±.48	2.72±.51	2.72±.51
35세 이상	2.88±.90	2.89±.60	2.50±.50	2.75±.60	2.75±.60
F값	4.25 [†]	3.26*	4.08 [†]	4.82 [†]	0.70
결혼여부					
미혼	3.03±.67	2.95±.52	2.68±.50	2.88±.49	2.33±.33
결혼	2.94±.75	2.89±.50	2.57±.50	2.59±.52	2.34±.29
t값	0.93	0.87	1.42	1.20	-0.21
최종학력					
전문대졸	3.03±.70	2.95±.51	2.63±.50	2.86±.50	2.32±.32
대졸	3.03±.70	2.95±.51	2.63±.50	2.86±.50	2.38±.34
대학원졸	3.02±.69	2.94±.66	2.71±.52	2.86±.50	2.34±.17
F값	0.25	0.24	0.43	0.04	0.56
근무연한					
2년 미만	2.89±.63	2.87±.49	2.59±.47	2.78±.46	2.29±.27
2~4년	3.19±.70	3.01±.51	2.72±.51	2.97±.51	2.37±.29
4~6년	2.95±.54	2.89±.36	2.71±.45	2.84±.39	2.33±.38
6~8년	3.10±.58	3.02±.55	2.71±.53	2.93±.47	2.40±.37
8~10년	2.59±.74	63±.61	2.40±.50	2.54±.56	2.25±.28
10년 이상	2.95±.82	2.95±.53	2.54±.49	2.81±.54	2.32±.32
F값	3.50 [†]	2.40*	2.05	3.17 [†]	97
종교					
기독교	2.96±.67	2.85±.51	2.54±.49	2.77±.49	2.31±.31
천주교	2.92±.68	2.92±.57	2.61±.47	2.81±.49	2.32±.27
불교	3.10±.70	2.96±.56	2.74±.54	2.92±.57	2.41±.47
무교	3.42±.48	2.99±.50	2.73±.51	2.94±.50	2.35±.30
기타	3.01±.69	2.93±.51	3.07±.44	3.25±.34	2.26±.32
F값	1.09	1.32	2.42*	1.81	0.70
근무병원					
가톨릭계 병원	3.05±.65	2.98±.49	2.71±.46	2.91±.46	2.46±.35
일반종합병원	2.84±.29	2.28±.29	3.00±.71	2.92±.53	2.63±.52
t값	0.53	0.85	1.15	0.92	4.05
	신체적 소진	정서적 소진	정신적 소진	전체 소진	스트레스
근무부서					
내과계	3.06±.70	2.99±.52	2.66±.51	2.90±.50	2.36±.31
외과계	3.03±.68	2.94±.46	2.67±.50	2.87±.48	2.39±.33
호스피스/암병동	2.82±.83	2.68±.69	2.53±.54	2.67±.64	2.29±.31
기타	2.90±.55	2.93±.52	2.63±.45	2.80±.40	2.12±.22
F값	1.05	2.54	0.54	1.50	4.84*
호스피스교육					
받았다	2.90±.71	2.81±.50	2.58±.46	2.76±.50	2.29±.31
받지 않았다	3.08±.68	3.00±.51	2.69±.52	2.91±.50	2.36±.32
t값	-1.89	-2.92 [†]	-1.59	-2.39*	-1.67

*P<0.05, [†]P<0.01

Table 3. 말기 암 환자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전체 소진	신체적 소진	정서적 소진	정신적 소진
연령	-.255	-.120	-.061	-.074
평균수입	-.002	-.002*	-.000	-.000
결혼여부	-.044	.255	-.283	-.072
근무연수	-.002	-.004	-.008	-.003
최종학력	1.220	.135	.207	.878*
종교				
기독교	-2.489*	-.871	-.743	-1.235*
천주교	-1.031	-.612	-.011	-.430
불교	-.344	-.546	-.571	-.226
기타	1.218	.521	-.776	-.079
병동만족도	5.462 [†]	1.739 [†]	1.685 [†]	2.037 [†]
근무부서				
내과	.502	.218	.549	-.265
외과	-1.451	-.724	-.088	-.639
기타	2.986	1.120	1.069	.796
호스피스교육	-.989*	-.271	-.520 [†]	-.198
스트레스	.547	.237 [†]	.181 [†]	.129 [†]
F	10.043 [†]	7.288 [†]	7.653 [†]	7.409 [†]
R ²	.403	.320	.332	.374

*P<0.05, [†]P<0.01; [‡]P<0.001. 단위: 표준화 회귀계수

정신적 소진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독교'인 간호사의 정신적 소진수준이 가장 낮았다. '호스피스교육유무'는 소진 영역 중 정신적 소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간호사의 소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말기 암 환자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전체 소진 및 모든 하부 소진영역들이 말기 암 환자 간호사의 소진에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진에서는 '종교', '병동만족도', '호스피스 교육'이, 신체적 소진에서는 '평균수입', '병동만족도' 및 '스트레스'가, 정서적 소진에서는 '병동만족도', '호스피스교육' 및 '스트레스'가, 정서적 소진에

서는 '최종학력', '병동만족도' 및 '스트레스'가 각 소진영역을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수는 전체 소진에서 40.3%, 신체적 소진에서 32.0%, 정서적 소진에서 33.2%, 그리고 정신적 소진에서 37.4%의 설명력을 각각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진은 기독교인인 간호사가 다른 종교를 가진 간호사에 비해 소진수준이 낮고, 병동만족도가 낮을수록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반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수록 소진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체적 소진은 수입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소진은 감소하는 반면 병동만족도가 낮고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신체적 소진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정서적 소진은 병동만족도가 낮고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정서적 소진 수준이 증가하는 반면 호스피스교육경험은 정서적 소진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소진은 종교가 기독교이고 병동만족도가 높으며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말기 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소진 수준은 간호사 자신뿐 아니라 간호사의 간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호스피스 및 암병동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를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상태인 말기 암 환자 간호사의 소진에 대한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나 환자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호스피스의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높다.

본 조사 대상인 말기 암 환자 간호사들은 가끔 느끼는 정도의 업무스트레스와 보통보다 약간 낮은 소진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소진>정서적 소진>정신적 소진 순의 소진양상은 박란희(2002)[3]와 신미혜(2002)[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상의 업무스트레스 및 소진수준은 말기 암 환자 간호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12], 일반화가 가능한 조사방법 및 도구 개발, 그리고 질적조사를 통한 확인이 요구된다.

본문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본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분포는 임상근무 암환자 간호사의 전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진 영역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개인적 특성상의 '연령'과 정신적 소진을 제외한 모든 소진영역에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낸 '근무연한'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즉, 전문대 졸업 후 종합병원에 근무한 지 2~4년 수준의 24~29세 미혼간호사가 가장 소진수준이 높은 말기 암환자 간호사의 모습이다. 이들 집단에 대한 호스피스교육유무가 정서적 소진 및

전체 소진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인 결과는 호스피스 및 말기 암병동 근무 간호사의 소진수준 감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소진영역에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병동만족도'와 관련된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말기 암 환자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동만족 요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업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하위영역이 과중한 업무량, 의사와의 갈등,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부적절한 준비, 그리고 다른 간호사와의 갈등 등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측면의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소진 하부 전 영역에서 나타난 간호사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과 전체 소진 및 정서적 소진에서 보인 호스피스교육의 필요성은 상호연관성 속에서 기획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호스피스교육이 말기 암환자 간호사의 소진수준에 비록 제한적인 기여를 하는 경향은 있으나 호스피스교육의 주요 내용 중 간호사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말기 암환자 또는 호스피스 병동 근무 간호사에게 의무적 사전준비로 상기교육이 제공될 필요는 충분하다. 한성숙(1994)의 연구에서는 암환자가 많지 않은 병동 근무 간호사와 암 병동 간호사의 비교 시 다른 종류의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말기 암 환자 및 호스피스 간호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부 소진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요구된다.

말기 암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소진을 예방하여 보다 긍정적인 수준의 적절한 간호요구에 대응하려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호스피스 교육 유무가 아닌 그 내용 등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가 보완되어야 말기 암 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환자중심의 완화의료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및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변수 및 세부 소진 영역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요 약

목적: 말기 암 환자 간호사의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말기 암 환자들에 대한 최적의 간호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진예방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말기 암 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30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 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 등이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실시되었다.

결과: 전체 응답자의 소진평균은 2.71로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소진유형별로는 신체적 소진이 가장 높았다. 연령과 근무연한이 신체적 소진과, 연령, 근무연한 및 호스피스교육 유무가 정서적 소진에서, 연령 및 종교가 정신적 소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종교, 병동만족도, 호스피스교육이 전체 소진을 설명하는 변수였으며 소진유형을 설명하는 변수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결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방법

참 고 문 헌

- 1) 김연희. 말기 암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부담감과 태도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2) 김은하. 임상근무 간호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3) 박란희. 암 환자를 간호하는 임상간호사의 소진경험과 대처유형.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4) 박지원. 임상간호사의 조직몰입과 소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5) 박성석. 임상간호사의 스트레스, 소진 및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6) 신미혜. 암 환자 간호사의 소진 영향요인 분석.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7) 송말순. 수술실 간호사의 역할 스트레스, 소진경험 정도와의 관계.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8) 이성자, 정승희. 수술실 간호사의 소진경험정도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논문집 1994;37:235-56
- 9) 장숙량, 이선자. 말기 암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연구 2000;26:29-37
- 10) 정미희. 치과위생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1) 통계청자료. 2002
- 12) Pines AM, Kanner AD. Nurse' burnout: Lack of positive conditions and presence of negative conditions and presence as two independent sources of stress. J Psychosoc Nurs Ment Health Serv 1982;20:30
- 13)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cation Company, 1984